

# 아이돌 그룹의 가요 리메이크 곡 연구 - ‘삼푸의 요정’ 을 중심으로 -

박종율,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e-mail: jyp\_0610@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 Pop Music remake song by Idol group research

Jongyul Park,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리메이크란 어떤 창작물을 그것과 같은 장르, 혹은 다른 형태로 다시 바꿔 만드는 것을 말한다. 노래하며 춤을 추고, 인원도 일반적으로 다수인 아이돌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 원곡의 음악적 특징과 스타일은 그룹의 구성과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 등에 의해 재해석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곡과 리메이크 곡 사이의 다양한 편곡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삼푸의 요정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의 원곡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버전의 리메이크곡 분석을 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시대별 상황, 현재 K-pop의 중심에 있는 아이돌 그룹의 리메이크의 형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가요를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친숙한 가수가 기존 가요를 리메이크 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당시의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를 넘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 1. 서론

리메이크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며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1]. 원작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되며, 또 원작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2].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악을 제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편곡적 시도가 가능해지고, 또한 가수 역시 시대에 따라 그 형태 및 음악적 표현방식, 구성 등이 달라졌다.

본 논문에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이하 ‘투바투’ 라 한다)의 ‘삼푸의 요정’의 리메이크 분석을 통해 원곡(빛과 소금 ‘삼푸의 요정’)과의 악기구성, 코러스, 보컬, 장르의 차이점과 원곡과의 공통점, 음악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 2. 본론

### 2.1. 삼푸의 요정

<삼푸의 요정>은 그룹 ‘사랑과 평화’, ‘빛과 소금’에서 활동하던 장기호가 드라마 ‘삼푸의 요정’을 위해 작사/작곡한 곡으로, 1989년 <<사랑과 평화 4집>>에 먼저 수록된 뒤 1990년 ‘빛과

소금’이 결성되면서 <<빛과 소금 Vol.1>>에 재수록된 ‘빛과 소금’의 대표곡이다.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퓨전재즈 스타일로 음악인들을 비롯해 대중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던진 곡이다.

이 곡이 삽입된 동명의 드라마 ‘삼푸의 요정’은 1988년 11월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방영한 작품으로, 장정일의 시 ‘삼푸의 요정’을 바탕으로 드라마화 하였으며, 홍학표, 채시라가 주연을 맡았다. 당시로서는 매우 세련된 작품으로, 단막극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재방영도 여러번 한, 히트작이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작품인 장정일의 시에서부터 드라마, 음악에 이르기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원소스 멀티유즈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곡자 장기호는 ‘봄여름가을겨울’, ‘사랑과 평화’, ‘빛과 소금’ 등에서 활동한 베이스리스트이자 가수, 작곡가이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전신인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에서 데뷔해서 활동한 뒤 2년 정도 후 해체, 이후 키보드주자 박성식과 함께 ‘봄여름가을겨울’을 탈퇴하고 ‘사랑과 평화’에 영입되어 4집 앨범을 내었다. 이후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인 한경훈과 같이 ‘빛과 소금’을 결성, ‘삼푸의 요정’, ‘내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오래된 친구’, ‘그대 떠난 뒤’ 등의 곡을 발표했다. 국내 퓨전재즈의 선구자적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에 전자사

운드를 최대한 배제한 인플러그드 공연 등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했다.

## 2.2 곡 분석 - 원곡버전

1. 네모 난-화면 해 지며- 삼매 사-다가 와 --- 二  
 2.3. 이른 아-침안 -개치림- 내게 로-다가 와 --- 二

은빛 의- 환상- 심 아- 준- 그 녀는 나 만의- 작은 새- 정-  
 너를 가- 리는 긴- 머리- 부 드럽히 소-속 속 아- 내-

[그림 1] 빛과 소금 ‘삼푸의 요정’ 1 ~ 12마디

위 [그림 1]를 살펴보면 전주 후 남자보컬 솔로로 진행되는 Verse 파트이며, 전체적으로 8마디를 반복하며 두 번째 반복에서 3마디와 10마디의 멜로디를 약간 변경한 a - a' 형식의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경쾌한 진행이며, a'에서 나오는 아이리쉬 휘슬 느낌의 신스 사운드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그 녀 반 보 면- 위- 뭉 지 않 아-  
 - 술- 폰 마 음 도- - 멜- 리 사 라 지

[그림 2] 빛과 소금 ‘삼푸의 요정’ 13 ~ 20마디

[그림 2]에서 Chorus 구간에 들어가기 전 13마디에서는 Dm7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A7의 대리코드인 C#dim7을 사용했다. 이는 C - C# - D 로 반음 상행하는 Ascending Passing Diminish Chord의 사용이다[3]. Chorus는 Verse 구간에 비해 멜로디 노트의 수가 적고, 동일한 리듬의 모티프(motif)를 반복하면서 강조하여 친숙한 느낌을 전달한다. 남자보컬이 유니즌으로 함께 나오며 멜로디가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며, 멜로디가 나오지 않는 구간은 신스 사운드를 추가해 멜로디 반복의 지루함을 해소했다.

가사는 장정일의 동명의 시 ‘삼푸의 요정’을 모티브(motiv)로 샴푸광고 속의 여인을 동경하는 화자를 표현한 시를 세련미 넘치게 재해석했다. 특히 ‘은빛의 환상’, ‘이른 아침 안개처럼’ 등의 가사는 원 시에는 없는 구절이지만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판타지적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압축적 표현이다. 이러한 가사를 통해 다소 무겁고 사회비판적으로 보일수 있는 시의 내용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원 시와는 다르게 통속적인 내용을 다룬 동명의 드라마 삽입곡으로 사용함에도 큰 무리가 없게 했다.

## 2.3. 투모로우바이투게더 - 리메이크버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019년 3월 데뷔한 5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으로, 주로 신스 팝을 위주로 하여 디스코, 하이브리드 록, 펑크, 힙합 등 장르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장, 상처, 만남, 극복과 같은 소년성장서사를 콘셉트로 삼고 있으며 문학적인 표현과 비유를 앨범과 곡명, 가사 등에 폭넓게 차용하고 있다. ‘삼푸의 요정’은 2020년 5월 발매한 한국 미니앨범 ‘꿈의 장 : ETERNITY’ 에 실린 6개의 곡 중 하나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 발표한 리메이크 곡이다. 이들은 원곡을 네오 사이키델릭의 하위장르인 드림 팝(Dream Pop) 장르로 재해석했다[4].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문학적인 표현들이 돋보이는 만큼 그룹의 콘셉트와도 합치한다.

### 2.3.1 INTRO

원곡의 INTRO는 상승하는 신스패드의 사운드와 드럼이 함께 4마디를 연주하며 이후 베이스와 기타의 등장으로 바로 이어 멜로디가 나온다. 이와 달리 리메이크곡의 INTRO에서는 보컬패드를 화음으로 깔아주면서 피아노 신스 사운드가 등장하고, 리듬파트는 첫 8마디 이후 콘트라베이스와 핑거스냅이 나오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구성은 리메이크한 가수가 보이그룹인 점에 비추어, 리듬파트를 제외하면서 리듬보다는 사운드에 집중해 풍성하고 몽환적인 감성을 그룹의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 2.3.2 Verse

콘트라베이스와 핑거스냅이 9마디부터 등장하며, INTRO에서 시작된 보컬패드는 Verse를 포함해 곡의 전체에 흐른다. 1절의 a'에서부터는 드럼사운드가 나오는데, 이는 드럼이 먼저 나오고 신스사운드가 a'에서 나오는 원곡과 그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존재하는 줄로만 in a fairytale 네모난화면해지마살며시내게 다 가 온나라 는요-정 원-지말  
 건 네는것 만감-아 맘 또는 실명안되는느낌 건는것만같은 기본저기구름처럼 어느  
 가 부-터나와마 음-속에서 리 하고-있는기아 난 마 치 - - 이른 아-침안

[그림 3]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삼푸의 요정' 48 ~ 59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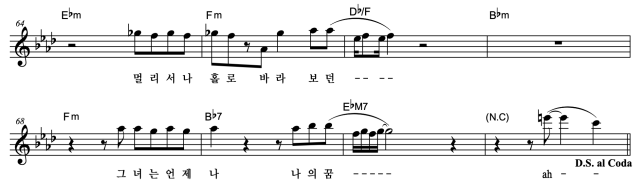
간주 이후 49마디에서 트럼펫 솔로가 끝나고 50마디에 잠시 공백을 주며 랩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준다. 51마디부터는 싱잉 랩으로 2절의 a구간을 진행한다. 싱잉 랩 구간은 '네모난 화면 헤치며 살며시 내게 다가온' 등 기존의 가사와 '걷는것만 같은 기분 저기 구름 위를' 등 새로 창작한 가사를 적절히 배치해 Verse의 통일감과 리메이크의 새로움을 동시에 추구했다.

### 2.3.3. Chorus

원곡에서 Chorus구간의 멜로디가 없는 부분을 채우던 신스 사운드는 리메이크곡에서는 트럼펫으로 대체했다. 이 트럼펫은 간주의 솔로파트 및 Outro까지 담당하고 있다. INTRO에서부터 이어지는 보컬파트는 Chorus에서 더욱 크고 화려하게 들리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강하게 전달한다.



[그림 4] 빛과 소금 '삼푸의 요정' 43 ~ 50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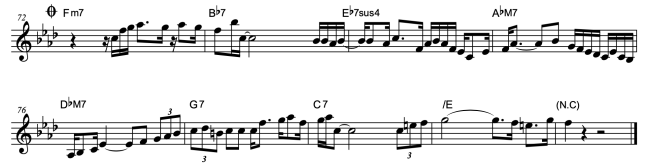
[그림 5]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삼푸의 요정' 64 ~ 71마디

Bridge구간 이후 전조가 되는 원곡과는 다르게 끝마무리까지 같은 Key로 진행이 되며, 원곡이 전조 이후에 신스 위주의 간주 구간이 있는 것과 달리, 리메이크곡은 Bridge구간 이후 바로 Chorus로 진행한다.

### 2.3.4 Outro



[그림6] 빛과 소금 '삼푸의 요정' 67 ~ 70마디



[그림 7]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삼푸의 요정' 72 ~ 80마디

Outro를 살펴보면 원곡은 Fade Out으로 끝나는데 비해 리메이크곡은 Chorus 이후 트럼펫이 한번더 솔로를 진행하며, 트럼펫의 연주가 끝나며 모든 연주가 마무리되어 깔끔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 3. 결론

리메이크는 곡 자체를 단순히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편곡을 통해 창조적인 음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삼푸의 요정은 1990년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세련된 음악으로 여러 뮤지션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 실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티스트가 이 곡을 리메이크했다. 이 곡을 통해 당시의 감성, 음악을 포함한 문화와 스타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알 수 있다. 이후 많은 리메이크로 음악적 변화의 시도가 있었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라는 아이돌도 현대의 k-pop 스타일로 리메이크하고 이를 대중이 소비한다는 것은, 1990년에도 2020년에도 공존하는 우리의 감성, 문화와 스타일, 사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대중음악이 언제든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를 넘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1] "리메이크 영화 <만추>의 비교분석 연구." 이인혜(Lee In Hye). 씨네포럼 0.19 (2014): 75-113.
- [2] <WHY> 리메이크에도 예외가 있다. 2007.08
- [3] 미국 어반어덜트 컨템포러리 음악과 한국의 시티팝 관계 연구 :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과 빛과 소금 <삼푸의 요정>을 중심으로. 유지영 2023
- [4] [D:청출어람in가요] '삼푸의 요정' 재해석의 나쁜 예... TXT, 리메이크의 한계? 2020.05